

칼빈주의와 네덜란드의 기업가정신*: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최 용 준**

논문초록

본 논문은 칼빈주의와 네덜란드의 기업가정신의 상관관계를 탐구하기 위한 고찰이다. 네덜란드는 칼빈주의가 신학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면에 적용되었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중에도 네덜란드의 가장 전형적인 국민성인 무역 정신(Handelsgeest)은 부존자원이 없고 강 대국에 둘러싸였으며 국토가 해수면보다 낮고 기후도 열악한 상황에서도 칼빈주의적 세계관으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 세계 최대의 무역국으로 17세기에는 황금시대를 구가했고 그 이후에도 유럽, 북미주 및 글로벌 차원의 기업가정신을 낳은 것으로 유명하다. 본 논문은 양자 간의 관계를 좀 더 깊이 다루기 위해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 후 황금시대에 칼빈주의의 역할을 고찰하고 유럽과 북미주에서 볼 수 있는 칼빈주의적 기업가 현황을 개괄하면서 다시금 양자 간의 깊은 관련성을 제시한 후 이에 관해 언급한 막스 베버의 명제를 재검토하겠다. 그 후에 맺을 결론은 칼빈주의가 제시한 직업윤리와 검소, 절약하는 청지기 의식이 네덜란드 기업가정신의 근본 동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양자는 불가분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칼빈주의, 네덜란드, 기업가정신, 막스 베버, 직업윤리

* 본 연구는 2013년 한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한동대 글로벌에디슨학부 교수

2014년 2월 6일 접수, 3월 10일 최종수정, 3월 12일 게재확정

I. 서론

네덜란드는 작지만 강하고 큰 나라이다(최용준, 2011). 전체 국토 면적은 41,526 km²로 한국의 40%, 인구도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 1600만 여명에 불과하지만 경제규모를 볼 때 2010년 일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4만 6418달러로 한국의 배가 넘으며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 국토의 25%가 바다보다 낮은 나라로 나라 이름 자체도 ‘낮은(Neder) 땅(Land)’이라는 뜻이며 날씨 및 자연 환경은 열악한 편이고 인구밀도도 높으며 영국, 독일 및 프랑스 등 강대국들 사이에 끼여 지정학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견고한 경제 기반과 안정된 정치로 선진국 대열에 서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네덜란드어로는 Ondernemerschap, 이와 함께 ‘무역 또는 상업 정신’이라는 뜻의 Handelsgeest도 많이 쓰임)은 유럽에서 최상위 권에 있다. 심지어 네덜란드 국민성을 표현하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이 ‘무역 정신(Handelsgeest)’이다. 물론 두 단어의 분명한 의미는 다르지만 적어도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네덜란드에서는 국제 무역을 통해 무에서 유, 즉 부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는 칼빈주의적 개혁교회로도 유명하다. 비록 칼빈이 네덜란드를 방문하거나 살았던 적은 없지만 그의 영적, 정신적 영향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깊이 남아 있다. 이것은 16세기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후 교육, 언론, 정치, 경제 등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구현하려는 네덜란드의 신앙적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칼빈주의는 매우 거룩하게 보이고 기업가정신은 다소 세속적인 것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양자 간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 칼빈주의가 네덜란드의 국제기업가정신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여기서 본 논문의 가설은 매우 긍정적이데 왜냐하면 칼빈주의는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억압에서 독립하는데 큰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17세기 황금시대이후 현재까지도 성경적인 가치관과 규범적인 방향을 통해 네덜란드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네덜란드는 비록 영토는 작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개혁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한 국제적인 기업인들이 많은 점에서 실제로는 매우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설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먼저,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겠다. 여기서 본 연구자의 주된 관심은 칼빈주의가 당시 네덜란드 공화국의 주된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다. 누가 이 칼빈주의를 네덜란드에 소개했는지 그리고 스페인에 대항하여 80년간 독립 전쟁을 하는 동안 칼빈주의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안트베르펜 및 프랑스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해 온 개신교도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나아가 칼빈주의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요약한 후, 그 이후 현재 네덜란드에 미치는 칼빈주의의 영향을 기술하겠다.

둘째로 칼빈주의와 네덜란드의 황금시대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싶다. 16세기 말에 네덜란드는 세계 무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고 17세기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학문 및 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특히 전 세계 향해 지도를 만들었고 동인도 회사가 최초의 다국적 회사로 설립되었으며 그 결과 주식 시장 제도도 시작되었다. 이 회사는 아시아 무역에서 2세기 동안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면서 17세기에 세계 최대 무역 회사가 되었다. 이렇게 급증하는 무역에 재정을 담당하기 위해 암스테르담 은행이 설립되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당시 네덜란드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많은 개신교도들이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황금시대의 발전과 칼빈주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찰해보겠다.

그 후에는 칼빈주의와 네덜란드 및 미국으로 이주한 네덜란드계 이민자들의 기업가정신을 각각 살펴보겠다. 미국에 관해서는 주로 미시간 서부 지역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곳에 네덜란드계 이주민들이 많이 정착하였고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계 기업가들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 분야를 깊이 연구한 에스터(Peter Ester)가 출판한 책을 다루겠다(Ester, 2012).

그 다음에 독일의 사회학자였던 막스 베버(Max Weber)의 책인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을 다루겠다(Weber, 1934). 이 책에서 베버는 개신교, 특히 칼빈주의자들의 노동 윤리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칼빈주의가 경제적 이득을 도덕적이고 영적 의미로 해석하면서 그것을 얻는데 헌신하도록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계획, 열심 있는 노동 그리고 세속적인

부를 추구하지 않는 자기 부인을 격려하는 신앙적 교리의 부산물이었다고 그는 본다. 즉, 가톨릭과 같이 종교적 권위로부터 받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개신교도들은 구원 받았다는 다른 “사인”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베버는 칼빈주의가 개개인 이 세속적인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해야 하며 돈을 낭비하는 것을 금하고 사치품을 구입하는 것을 죄로 규정하면서 검소하고 절약하여 저축함으로써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베버의 명제가 과연 네덜란드 상황에서 타당한지 검토해보겠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 후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다.

II. 칼빈주의와 네덜란드의 기업가정신

1. 역사적 배경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한 칼빈주의는 기도 드 브레스(Guido de Bres, 1522-67)가 1550년대 당시 네덜란드 남부 지방, 지금의 벨기에 지역에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별로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이후 1566년에 50여명의 칼빈주의적인 설교자들이 교회의 개혁 운동을 더 강화하기 위해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스위스에서 네덜란드로 왔다. 그 중에서도 영국과 독일의 엠덴(Emden) 지역에 있던 네덜란드 개신교 피난민들이 네덜란드의 종교 개혁 운동을 본격화시켰다(Israel, 1995: 101-05). 그러자 유명한 성상 파괴 사건(Beeldenstorm: Iconoclastic Fury)이 일어났고 개혁운동은 더 확산되었다(Crew, 1978).

프랑스어권의 개혁교회는 1554년에 안트베르펜(Antwerpen 불어는 Anvers)에 최초로 설립되었고 1년 후에 네덜란드어권의 교회도 그곳에 설립되었다(Pettegree, 2000: 347). 그 후에 브루헤(Brugge) 등 산업이 발전한 소위 플랜더스 서쪽 지방(Westkwartier)이 개혁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칼빈주의는 이미 1560년경에 하나의 대중 운동이 되었다(Pettegree, 2000: 347-49). 1561년에 드 브레스가 작성한 벨직 신경(Confessio Belgica)이 1566년에 네덜란드 칼빈주의 개혁교회에 공식적인 신앙고백으로 채택되면서 그 후 네덜란드의 북부 지역에도 조직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Pettegree, 2000: 348).

그러나 스페인의 전제군주 필립 2세가 보낸 알바(Alva) 공이 네덜란드의 개신교도

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많은 상인들과 기업가들이 안트베르펜, 투르네(Tournai, 네덜란드어로는 Doornik) 및 다른 도시들로부터 떠나 다른 국가들에 있던 칼빈주의자들과 상업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다(Pettegree, 2000: 356). 가령 안트베르펜이 1585년 함락되자, 많은 전문 기술자들과 부유한 상공인들로 구성된 개신교도들은 북쪽의 암스테르담(Amsterdam)으로 이주하면서, 원래는 작은 항구도시였던 이 도시는 1630년경에 일약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업 중심지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1685년 프랑스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낭뜨 칙령(L'édit de Nantes)이 철회되면서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인 위그노들(Huguenots)도 네덜란드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상인들과 뛰어난 과학자들이었다. 이들 또한 네덜란드에 칼빈주의를 꽃피울 뿐 아니라 실크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한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학문적인 황금시대를 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Israel, 1989: 352-53).

이렇게 하여 비록 칼빈은 한 번도 네덜란드를 방문한 적이 없지만 그의 가르침은 이곳에서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고 환영을 받게 된다. 아펠로(Karla Apperloo) 또한 네덜란드에서 칼빈주의가 자란 것은 16세기에 스페인에 대항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정교분리를 강조했다기 때문에 네덜란드인들이 독립 전쟁에 참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www.expatica.com/nl/news/news_focus/The-Netherlands-The-most-Calvinist-nation-in-the-world_14301.html). 즉 칼빈은 어떤 상황에서는 정부에 저항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는 가톨릭이나 루터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Calvin, 1960: 1520-1521)

그 후 18세기 후반에 네덜란드의 정치가요 언론인이며 교육가이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칼빈의 사상을 단지 신학 사상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신칼빈주의(neo-Calvinism)라는 이름으로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삶의 전체적인 체계로 이해하면서 모든 생활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였다(Kuyper, 1931). 그는 이것을 세계 및 인생관(Wereld-en levensbeschouwing)이라고 불렀으며 이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1880년 암스테르담에 칼빈주의적 기독교대학인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를 설립하면서 유명한 개교 연설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했다. “이 세상의 어떤 영역도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Kuyper, 1880).” 이 칼빈주의적 세계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겠다(최용준, 2013):

1)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권을 가지고 구속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구속되어야 한다. 학문과 신앙 그리고 삶 전체가 온전히 통합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성/속으로 나누는 스콜라적 이원론은 용납되지 않는다.

2)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드셨으며 인간을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후 이 모든 피조계를 다스리며 보존해야 하는 소위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을 축복으로 주셨다. 따라서 인간은 창조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3) 하지만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피조계가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지금 이 세상은 깨어지고 뒤틀려 신음하게 되었다.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이 상태를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셨으며 그 이후 성령께서 오셔서 이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적용하시며 마침내 완성하신다.

5) 우리의 삶의 각 영역(교회, 국가, 가정, 기업 등)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 받은 나름대로의 책임과 주권이 있다. 따라서 어느 영역도 다른 영역에 주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영역 주권(Sovereiniteit in eigen kring, Sphere-Sovereignty)이라고 한다.

6) 피조세계의 구조와 방향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구조란 창조의 법칙 및 규범적 질서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 여전히 보존되고 있으나 방향은 그 규범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을 향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이다.

7) 타락에도 불구하고 피조계의 완전한 파괴를 방지하는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Common grace)은 악의 확장을 억제하며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베푸시는 비구속적인 선물이다.

8) 역사 및 개인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불순종간,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간의 영적 대립 (Antithesis)이 존재한다.

9) 모든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사고도 따라서 중립적이지 않다. 모든 생각과 삶은 궁극적으로 세계관에 의해 결정되며 나아가 이 세계관은 종교적 근본 동인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이 개혁주의적 세계관에 의해 형성되고 인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혁사상을 기반으로 카이퍼는 먼저 목사로서 당시 타락한 국가교회를 개혁하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최용준, 2012: 237-247) 언론가로서 일간 및 주간 신문 (*De Standgaard*, *De Heraut*)을 창간하여 주필로 활동하였고 자유대학교를 설립하여 초대 총장 및 신학교수로 봉직하다가 나중에는 정치에 입문하여 기독교 정당인 반혁명당(Anti-Revolutionary Party)의 지도자로 일하였고 마침내 1900년부터 5년간 네덜란드의 수상으로 재직하면서 사회 전반에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이후 그의 제자들에 의해 이러한 세계관은 계속해서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남아공 등 전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¹⁾

그 결과, 네덜란드는 한편으로 소량의 마약 소지 및 매춘이 허용되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관용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정직하고, 양심적이며, 규정을 잘 지키고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칼빈주의적 특성을 가진 나라로 소개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네덜란드의 수상이었고 카이퍼를 이은 칼빈주의자로 자처하는 발켄엔데 (Jan Peter Balkenende)도 네덜란드는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살며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칼빈주의적인 나라라고 말하면서 칼빈의 도덕적인 교훈들은 현대에 더 적절하며, 욕심, 돈과 이기적인 행동에 의해 야기된 경제 위기는 다시금 도덕성의 회복이 필요함을 분명히 말해 주고, 칼빈은 사회가 이러한 도덕적 기본이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도 이러한 교훈을 배워야 함을 강조했다 (www.expatica.com/nl/news/news_focus/The-Netherlands_-The-_most-Calvinist-nation-in-the-world_14301.html).

1980년대 들어오면서 네덜란드 사회는 한동안 일요일에 쉬는 규정이 느슨해지는 등 칼빈주의가 상당히 약화되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자유주의와 관용성의 시대가 지나고 다시 보수주의로 회귀하는 경향도 있는데 가령 드로스(Lodewijk Dros)는 네덜란드의 칼빈주의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7만 명의 자원자들에게 4개월간 칼빈주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네덜란드 사람들 중 56퍼센트가 칼빈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음을 밝혔다 (www.expatica.com/nl/news/news_focus/The-Netherlands_-The-_most-Calvinist-nation-in-the-world_14301.html).

2. 네덜란드의 황금시대²⁾

17세기 네덜란드 경제 발전의 출발점은 우선 어업, 그 중에도 청어잡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세 당시 네덜란드 인구는 100만 명 정도였는데 그 중 약 20만 명이 청어잡이에 종사할 정도였으며 매년 여름 수많은 청어들이 네덜란드 북부 연안에 나타나는데 육류와 가금류의 공급이 많지 않던 중세부터 근대 초까지 매년 천만 킬로그램 이상 잡히는 청어는 매우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blog.daum.net/01099187669/8731902).

1) 대표적인 웹사이트로는 www.allofliferedeemed.co.uk이다.

2) 얼마 전 네덜란드TV에서는 이 황금시대에 관한 특별기획 다큐시리즈가 방송되었다. goudeneeuw.ntr.nl 참조.

지금도 이 청어(네덜란드어로는 하링 Haring, 영어로는 헤링 Herring)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생선으로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선이 상하기 쉽다는 점이었는데, 14세기말 청어의 내장을 제거하고 소금으로 절이는 방식이 개발되면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게 되어 해상 운송을 통해 외국에까지 수출할 수 있었고 이러한 어업의 발전이 나중에 해상 무역으로 연결되면서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은 다시 상공업의 발전을 가져와 선박 건조 및 항해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blog.daum.net/01099187669/8731902).³⁾

17세기 네덜란드가 향유했던 황금시대(De Gouden Eeuw: The Golden Age)의 경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까지 약 한 세기는 스페인에 대항하여 독립 전쟁을 치르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창조적이 되었고 효율성이 강화되어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렸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당시 네덜란드 경제는 농업,⁴⁾ 축산업, 제조업, 상업,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 이유로는 농업 및 무역의 증대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숙련 노동자들이 다른 곳에서 네덜란드로 이주하게 된 사건 그리고 산이 없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열악한 지형 조건을 역이용하여 개발한 풍차를 이용한 저렴한 에너지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었던 국부와 협동적인 재정 제도의 탄생을 지적할 수 있다(en.wikipedia.org/wiki/Dutch_Golden_Age).

17세기 네덜란드가 누린 이 황금시대는 사실 암스테르담 이전에 지금의 벨기에인 브루헤(Brugge)와 안트베르펜(Antwerpen)으로 거슬러 올라간다.⁵⁾ 13세기에서 15세기까지는 브루헤가 직물업 및 항구도시로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 황금시대를 누렸으며 15세기에는 북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 그러나 그 후 무역의 중심이 안트베르펜으로 서서히 옮겨가게 되어 1550년 경 이 도시는 유럽의 사탕 수도가 되었고 영국에 자본을 대출하는 비즈니스가 성업을 이루었으며 직물 산업의 부흥으로 세계 무역의 40%를 차지했다. 나아가 국제 경제의 중심지로서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인 동시에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외국의 수많은 상인들이 영주하고 있었다. 많은 외국인들이 안트베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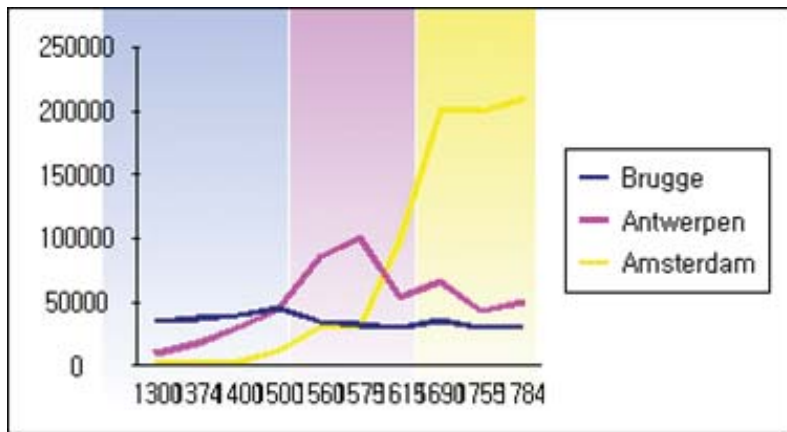
3) 이에 관해서는 EBS특별기획 대국굴기 제02편 小國大業 작은 나라 네덜란드, 세계를 움직이다 www.youtube.com/watch?v=tHORMME_U6o 참조.

4) 당시 농업의 발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hael North, *Das Goldene Zeitalter*. (Böhlau: 2001) 22-27 참조.

5) 이 세 도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www.zum.de/whkmla/sp/1011/ignoramus/igno1.html#1 참조.

펜의 경제를 장악하면서 이 도시는 더 국제화되었고 다양한 사상에 대해 관용적이 되어 많은 유대인 공동체도 생겨났다(en.wikipedia.org/wiki/Antwerp#_16th_century).⁶⁾

그러나 그 후 안트베르펜의 경제가 급속도로 후퇴하면서 상대적으로 암스테르담이 융성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1572년에 스페인에 대항한 80년 독립전쟁이 시작되자, 양국 간의 무역이 중단되었고 1576년 11월 4일에 스페인 군인들이 안트베르펜 시를 약탈하여 7000명의 시민들을 학살했으며 800여 채의 주택들이 불타 소실되면서 수많은 재정적 손실을 입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트베르펜은 한동안 독립 전쟁의 중심지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585년 스페인의 공격에 의해 함락되자 전문 기술자들 및 기업가들이 대거 북쪽 암스테르담 지역으로 이주했다. 그 이후에도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인 위그노들, 포르투갈의 유대인들,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유롭고 관용적인 네덜란드로 이주하면서 17세기에 이 나라는 ‘경제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한 것이다. 아래 <도표 1>에 나타난 브루헤, 안트베르펜 그리고 암스테르담의 인구 성장 추이는 위의 사실을 잘 보여준다(www.zum.de/whkmla/sp/1011/ignoramus/demographic.gif).



<도표 1> 브루헤, 안트베르펜, 암스테르담의 인구 성장 추이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인구)

6) 이 당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박물관은 안트베르펜에 있는 MAS(Museum aan de Stroom)이며 이 때 유명한 화가 루벤스(Peter Rubens: 1577-1640)가 활동했다. 또한 인쇄술이 발달하여 틸데일(William Tyndale: 1494-1536)이 번역한 영어 성경을 비롯한 유럽의 각종 출판물들이 이곳에서 출판되었다.

나아가 당시 개발된 풍차는 완전한 무공해 공장인 동시에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원으로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지금도 잔스 스칸스(Zaanse Schans)에 남아 있는 풍차들을 보면 기름을 짜고, 가루를 만들며, 물을 펴내고, 심지어 제재소 기능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시에 많은 호수들이 간척되어 농지가 늘어나면서 농업 및 낙농업도 발전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간척지는 북홀란드의 베임스터(Beemster)지역으로 당시 레흐바터(Jan Leeghwater, 1575-1650)는 건축가 및 수력공학자로 이 지역을 간척할 때 풍차 기술을 개발하여 큰 공헌을 했다.

당시 조선업은 유럽의 최대 산업 분야였는데 여기에는 무엇보다 다량의 목재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북동부 유럽 또는 러시아, 나아가 아메리카 대륙에서까지 목재를 들여왔고 수많은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으며, 대자본가들이 이 전체를 관장했다. 그 때 네덜란드의 조선 산업은 작업이 표준화되고 기계화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었다. 또한 제당업, 출판업, 요업 그리고 직물업에서도 네덜란드는 크게 앞서 있었는데 가령 산업화 이전 시대에 농업 다음으로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직물업이었는데 네덜란드는 완전한 기계화를 이룬 정도는 아니지만 그 직전 단계에 이르렀으며 대표적인 직물업 도시는 레이덴(Leiden)이었다.

그러나 황금시대 네덜란드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역시 해외무역이었다. 네덜란드는 당시 세계의 물류 중심으로써 유럽 전역에 대해 수요 공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당시에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없었으므로 대규모의 물품 운송은 주로 수로를 이용했는데 가령 동유럽에서 생산된 곡물이나 목재를 지중해 지역으로 가져가든지, 반대로 이태리에서 생산한 직물을 러시아로 가져갈 때 중계하는 지역이 바로 암스테르담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무역에 필요한 화폐와 아메리카 대륙에서 들어온 귀금속 역시 각 지역으로 운송되었는데 이런 국제 무역의 중심이 네덜란드였다. 이리하여 17세기 네덜란드의 경제는 모든 면에서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여건 하에서도 당대 최고 수준에 이르러 전 세계 제품들이 암스테르담에 들어와 거래되었고 이곳에서 결정된 가격이 곧 유럽 경제의 표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암스테르담은 유럽 경제의 수도 역할을 하였다.

특히 네덜란드 무역의 팽창에서 분수령이 되는 시점은 1590년대였다. 이 때 네덜란드 선단이 본격적으로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 지중해로 들어가 이태리 및 지중해 동부 지역과 직교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유럽의 경제사에서 획기적 사건이었다. 당시 유럽에서 문화, 경제적 중심은 미켈란젤로나 다빈치 같은 거장들이 활동하던 이태리였다.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 선단이 이태리 본토에 직접 와서 무역을 하면서 지중해 동부 지역을 장악하게 되어 유럽의 중심은 이태리가 지배하던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전하면서 마침내 대서양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16세기말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아시아 및 아메리카로 나가 식민지를 건설하는 동안 네덜란드는 두 나라의 식민지 상품 배분 사업, 즉 도매업에 참여함으로써 큰 이윤을 얻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지고 세계 전체와 통하는 자본주의적 상업망이 만들어짐에 따라 경제 조직도 변화, 발전해 갔다. 네덜란드의 대도시에는 유럽 최고 수준의 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자본을 여러 분야에 나누어 투자하였다. 그 결과 수익성과 위험 분산을 위해 모든 사업마다 많은 투자자들의 분할 투자가 이루어졌다. 가령 배 한 척도 한 사람이 전부 소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나아가 이 하나의 지분을 다시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예사여서, 심지어 가난한 과부 할머니가 어떤 선박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는 일들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보험업이나 은행업 등 금융업 분야들이 생겨났다.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1602년에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시에 다국적 기업인 연합동인도 회사(VOC: 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United East India Company)를 암스테르담에 설립하여 세계 제일의 무역국으로 발전하였다. 이 회사는 거의 2세기 동안 아시아 무역을 독점하여 세계 최대의 무역회사가 되었다. 나아가 최초의 증권거래소(stock exchange)도 1609년에 암스테르담에 설립되었는데 이는 런던 증시보다 100년이나 앞선 것이다. 또한 당시에 설립된 암스테르담 은행은 유럽의 재정 센터가 되었다. 특히 이 동인도 회사는 동방무역 회사들의 상업 자본을 하나로 모아 거대 자본을 형성하였으며 나아가 안정적인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역투자의 장기화를 실현하여 대규모의 근대 주식회사로 변모시켰다. 당시 이 회사는 국가가 부여하는 각종 특권에 대한 조건으로 정부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는데 정부는 이 돈을 동인도회사에 재투자하면서 동인도회사의 대주주가 되었다. 당시 네덜란드 의회는 동인도회사에 특허장을 발급한 후 10년마다 한 번씩 자산평가를 하여 투자 기간을 연장했다고 한다. 이때 사전에 자금을 회수하기 원하는 주주들은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에서 쉽게 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식 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주만 바뀌는 현대적 주식 시장과 같은 형태를 갖춘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동인도회사는 자원이

조달되어 막대한 부가 모이면서 독보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었고 각종 위험 요소가 있는 대규모 해외무역을 무리 없이 행할 수 있었다.

나아가 1621년에는 서인도 회사(GWC(Geocroyeerde Westindische Compagnie): Dutch West India Company)도 설립되어 아프리카에서는 노예들을, 카리브 해에서는 금과 은을 싣고 와서 무역을 하면서 북미 지역과 카리브 지역에 많은 식민지들을 건설했다. 가령 이 시기에 네덜란드인들은 남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 등지에 식민지를, 북미 대륙에도 뉴암스테르담(지금의 뉴욕)을 건설하였다. 오세아니아에 간 상인들은 뉴질랜드를 발견하였고 일본에도 진출하여 나가사키에 무역공간을 마련하여 일본은 ‘난학(蘭學)⁷⁾’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의 학문과 문화를 거의 300년간 배워 동양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 네덜란드 상인들은 일본이 금지한 기독교 선교를 하지 않고 무역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⁸⁾

이러한 네덜란드의 황금시대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 대표적 예가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Sankt Peterburg)이다. 이 도시를 최초로 건립한 왕은 표트르 대제인데 그가 왕위에 오른 후 1695년경 투르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그는 흑해를 지배할 여력이 없음을 알고, 해군 증강에 몰두하면서 18개월에 걸친 유럽 순방을 통해 유럽의 선진문명을 배우고자 했는데 그 중에서 표트르대제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진 분야는 바로 당시 최대의 전성기를 누리며 전 세계를 주름잡던 네덜란드의 조선술과 항해술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네덜란드에서 건조된 플라위트 범선(네덜란드어로 Fluytschip)이다(ko.wikipedia.org/wiki/플류트). 이 범선은 대양횡단 운송을 위해 선원 효율성이 최대로 발휘되면서도 배의 용적이 최대치가 되도록 제작되었으며 건조비는 비싸지 않아 당시 네덜란드 해상 제국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기타 바지선, 가로등 시설, 새로운 수문들, 선박 건조술, 제재용 풍차 및 다른 풍차들, 직조기 등의 기술력에서도 첨단을 달려 당시 네덜란드는 저지대에 운하를 이용한 도시를 계획하여 건설하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세계 최고의 계획도시 암스테르담이다.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네덜란드를 다녀온 표트르 대제가 이 암스테르담을 모델로 하여 건설

7) 보다 자세한 내용은 en.wikipedia.org/wiki/Rangaku 참조. 여기에는 의학, 물리학, 전자공학, 화학, 광학, 기계공학, 지리학, 생물학, 천문학 등 매우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이것이 일본의 개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8) 또한 이런 과정에서 조선에 최초로 상륙한 서양인 또한 네덜란드인이었다. 먼저 박 연(네덜란드명 얀 벨트브레(Jan Weltevree))이 귀화했고 다음에 하멜(Hendrik Hamel) 일행이 있었다.

되기 시작한 것이다.

17세기 네덜란드가 이렇게 세계 역사 속에서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해양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세계 해양시장에 진출했던 선박 확장 정책에 힘입어 1634년에는 네덜란드 상선의 숫자가 2만 4천여 대로 이는 당시 유럽 전체 상선의 3/4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1670년에 네덜란드 선박의 총 톤수는 영국의 세배로, 영국·프랑스·포르투갈·스페인·독일 연방의 선박 총 톤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았다(blog.daum.net/sumbolon/4984197).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네덜란드는 지금도 유럽 최대의 관문인 로테르담 무역항을 바탕으로 세계 무역의 중심에 서 있다.

3. 네덜란드의 황금시대에 있어 칼빈주의의 역할

지금까지 살펴본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영적, 정신적 동인(driving force)으로 칼빈주의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먼저 16세기에 네덜란드가 가톨릭을 앞세운 스페인 필립 2세의 전제정치에 맞서 침묵의 윌리엄(William the Silent, 1533-1584)공의 리더십 하에 80년간 독립 전쟁(1568-1648)을 치렀는데 객관적 전력으로는 절대 열세였지만 게릴라 전술로 승리하여 마침내 1648년 네덜란드는 베스트팔렌(Westfalen) 조약과 함께 독립을 맞게 되었으며, 독립한 네덜란드 연방 공화국의 정체성은 바로 칼빈주의적 개신교였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여전히 왕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네덜란드는 독립 후 공화정을 채택했다는 점이다(Israel, 1995). 칼빈주의는 이러한 독립전쟁 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체제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북부는 거의 칼빈주의자들이었으며 교회는 네더다웃츠(네덜란드와 독일을 합친 말) 개혁교회(Nederduits Gereformeerde Kerk)라고 불렸다. 칼빈주의는 네덜란드인들의 신념과 조직에 부합하는 사상이었는데 왜냐하면 칼빈의 교리는 당시 부르주아의 대담한 사상과 일치했으며 교회 조직도 매우 민주적인 동시에 공화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주와 주교, 영주들에게 복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고 그 결과 독일의 루터 사상이 군주와 타협한 반면, 칼빈주의는 네덜란드에 공화국을 수립하게 된 힘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방 공화정으로 인해 지역 경제는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

고 노동 시장 역시 매우 자유롭고 융통성이 있어 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네덜란드는 17세기에 황금시대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⁹⁾ 이런 점에서 바인스(Ernst Beins)는 칼빈주의와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공화국이 최초로 근대적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국가라는 점에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는데(Beins, 1931: 81-156) 나중에 하이마(Albert Hyma)도 동일한 주장을 했다(Hyma, 1938: 325).

네덜란드 공화국의 정치적 중심은 북홀란드주의 개신교 지역이었고 남부는 북부의 리더십을 따르고 있었으며 벨기에도 분리되지 않았지만 이 지역은 여전히 가톨릭이 강했다. 당시 부르조아 시민사회에서 시청과 교회는 근세 도시의 두 축이었는데 존경 받으며 출중한 인물들이 시장과 시의원으로 재직했다. 시의회 위원들은 가장 좋은 가문의 훌륭한 교육을 받은 이들 출신으로 뛰어난 정치철학으로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제대로 기획할 능력이 있었으며, 시의회는 민주적으로 운용되었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17세기의 네덜란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근대 국가와 정치체도의 기반을 잡은 시기로 생각할 수 있으며 가장 건전하고 바람직한 시민문화가 꽃을 피웠다(Israel, 1995). 따라서 하이마는 17세기의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제 상황을 비교 하면서 당시 네덜란드인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반면 독일은 매우 가난했다고 지적한다(Hyma, 1938: 338). 가령 샤마는 당시 네덜란드의 루이 드 기어(Louis de Geer)라는 한 칼빈주의 기업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그는 열성적인 칼빈주의자인 동시에 기업가로서 경건한 삶과 위엄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그는 왕의 운하(Keizergracht)에 있는 소이허어 가로부터 주택을 구입하여 프랑스와 이태리에서 수입한 값비싼 가구로 장식했다. 그러나 그 대신, 십일조를 가난한 자의 구제를 위해 사용하였고, 그의 자선 사업은 널리 알려졌으며 30년 전쟁으로 중부 유럽에서 온 칼빈주의자 피난민들을 많이 도왔다. 1646년에 그는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Schama, 1987: 334-35).

이러한 상황에서 칼빈주의는 검소, 질서의식, 성실성 및 절제를 강조하여 근대 자본주의 정신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고 하이마는 잘 지적하고 있다(Hyma,

9)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는 Simon Schama, *The Embarrassment of Riches: An Interpretation of Dutch Culture in the Golden Age*, (New York: Alfred Knopf, 1987) 및 Nelleke Noordervliet, *Nederland In De Gouden Eeuw*, Amsterdam: Rijksmuseum, 2003 참조.

1938: 81-156). 이처럼 공화국이 성립되자 정치적 안정을 되찾은 네덜란드는 활발한 무역을 발판으로 해상 파워를 가진 유럽 금융의 중심지로서 명성을 떨치며 기업가 정신을 더욱 발전시켜 해외 진출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한편, 이 시대에는 문화적으로도 황금기를 맞이하여, 렘브란트(Rembrandt van Rijn, 1606-1669), 페르미어(Johannes Vermeer, 1632-1675) 그리고 할스(Frans Hals, 1582-1666) 등의 화가와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 - 1536), 스피노자(Baruch Spinoza, 1632-1677),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 - 1650)와 같은 철학자도 배출하였다. 당시 네덜란드는 칼빈주의가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나 사상에 대해 매우 관용적인 나라였으며 지금도 이러한 관용성(네덜란드어로 Verdraagzaamheid 영어로 tolerance) 또한 네덜란드의 중요한 국민성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네덜란드 공화국은 경제적 문화적 번성을 누렸지만 귀족들이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칼빈주의적 세계관은 계속해서 근면, 성실한 노동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일상적이고 평범한 가사일도 경시되지 않았으며 모든 직업이 신성하다는 성경적인 노동 및 직업윤리가 계속해서 강조되었다. 가령 당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 귀족들의 화려한 삶 보다는 평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다수임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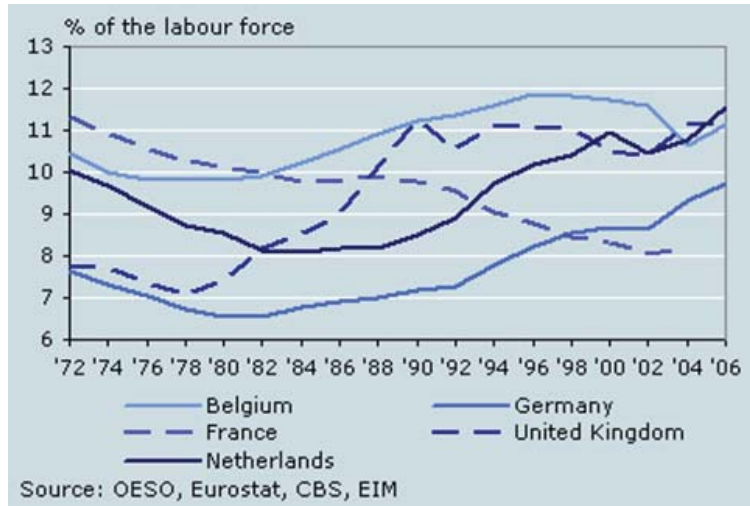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제사학자인 하우즈바르트(Bob Goudzwaard)는 이렇게 칼빈주의와 자본주의를 쉽게 연결시키는 단순한 관점에 대해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www.allofliferedeemed.co.uk/Goudzwaard/BG13.pdf).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칼빈이 말하는 것을 정직하게 이해한다면 양자 간에 영적인 관계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우즈바르트는 프랑스 출신의 개혁주의 신학자 두메르그(Emile Doumergue, 1844-1937)를 인용하면서 원래적 칼빈주의와 자본주의를 연결시키는 것은 마치 기계에서 모든 밸브와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작동시키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칼빈이 이자와 연결시켜 말하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모든 인류를 위한 지구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목적을 말하며, 새로운 질서를 말할 때, 사랑의 계명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모든 밸브와 브레이크를 제거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밸브와 브레이크를 제거하지 않는 한에서만 우리는 경제적인 삶의 추진 동력으로서 “칼빈주의”와 그 결과 경제 제도의 자본주의적인 방향 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그는 본다. 따라서 하우즈바르트는 이 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칼빈 자신의 생각과 이후 추종자들의 사상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칼빈은 결코 자본주의가 추구

하는 무한한 경제 성장을 결코 허용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본 연구자도 하
웃즈바르트의 입장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적 세계관이 네덜란드 공
화국의 형성 및 그 이후 황금시대의 형성에 어느 정도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사실 드 프리스(Jan de Vries)와 반 데어 바우드(Ad van der Woude) 또한 네덜란
드 공화국 당시의 상황이 막스 베버가 밝히려했던 특징들을 분명히 보이지 않았고 독
특한 개혁주의 신학의 형태를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칼빈주의적 경제”였는
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칼빈주의가 네덜란드 국가
의 정치 구조, 문화적 공헌, 부동산의 생산적인 사용 및 교육에 대한 헌신 등으로 어
느 정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인정한다(De Vries & Van der Woude, 1997: 172).
나중에는 적지 않은 네덜란드의 칼빈주의적 개신교 피난민들이 상인 및 기업가들로
독일의 북서부인 라인란드 지방으로 이주해 독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지역을 전통
적인 도시 시민 사회에서 근대적인 부르조아 사회로 먼저 탈바꿈시켰음을 쉐링(Heinz
Schilling)은 지적하고 있다(Schilling, 1994: 321-33). 이와 같이 칼빈주의는 신앙의 영
역뿐 아니라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다양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
음을 알 수 있다.

4. 칼빈주의와 유럽에서 네덜란드의 기업가정신

현대적 상황에서도 기업가 정신은 네덜란드의 경제 성장 및 고용의 발전에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더치 데일리 뉴스(Dutch daily news)에 의하면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
장 기업가 정신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가령 18-64세의 네덜란드인들 중 7.2%가 창
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유럽에서 1위이다([www.internationalentrepreneurship.com/
europe/netherlands](http://www.internationalentrepreneurship.com/europe/netherlands)). 나아가 1972년에서 2006년까지 유럽의 주요 4개국 기업가들 숫자
의 증가를 비교해보면 아래 <도표 2>와 같이 네덜란드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www.cbs.nl/en-GB/menu/themas/bedrijven/publicaties/artikelen/archief/2008/2008-24
83-wm.htm](http://www.cbs.nl/en-GB/menu/themas/bedrijven/publicaties/artikelen/archief/2008/2008-2483-wm.htm))



〈도표 2〉 유럽 주요국의 기업가 정신 통계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노동력 중의 기업가 비율)

이렇게 네덜란드의 기업가 정신이 높은 이유는 네덜란드인들이 비교적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위험 부담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들을 오히려 잘 받아들이는 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난 황금시대부터 국제 무역을 통해 체질화된 하나의 국민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유럽의 국가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바로 거기에 뛰어드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슈링스(Ute Schurings)는 지적한다(Schurings, 2003). 이러한 점이 네덜란드가 다른 유럽 국가들과 차별되는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네덜란드의 혁신 및 도전 정신이 발달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네덜란드가 작으면서도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 둘러싸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네덜란드는 라인강을 따라 전 세계에서 유럽으로 오는 모든 물품들의 관문 역할을 했다. 이러한 무역 활동을 통해 수백 년간 네덜란드는 다른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항구들은 제품, 자본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 및 역사가 공존했다. 따라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러한 민족들 간의 차이에 대해 거의 개의치 않았으며 윤리적인 문제도 거의

없었다. 그 결과 네덜란드는 매우 ‘관용적인’ 나라가 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네덜란드 기업가정신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면은 네덜란드는 셸(Shell), 유니레버(Unilever), 필립스(Philips), 왕립 네덜란드 항공(KLM) 등 거대 기업들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회사들은 자기 나라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언제나 전 세계를 시장으로 본다. 중소기업들도 정부의 지원 및 여러 기구들의 도움을 받는다. 이들은 생산의 혁신이 너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종종 현대적인 분야와 전통적인 분야들을 연결시키기도 한다. 가령, 엔지니어와 경제 또는 현대 예술과 심리학 등을 연결시킨다.¹⁰⁾ 또한 본 연구자의 리서치에 의하면 네덜란드의 남부 도시 헬렌(Heerlen) 주변에는 과거 필립스가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생산하던 공장 지역이 있는데 한 부동산업자가 그 전체를 구입한 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여 비즈니스 파크를 조성한 후 분양하여 정부로부터 혁신적인 비즈니스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용준, 2013: 13-17)

동시에 주목할 사실은 영국의 BBC 방송이 칼빈주의가 현대 네덜란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 리포트를 했는데 이에 의하면 최근의 경제 위기는 오히려 가치와 노동 그리고 검소한 삶을 강조하는 네덜란드의 칼빈주의를 더욱 부흥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25세인 루벤 반 즈비텐(Ruben van Zwieten)은 암스테르담 남부 재정 중심지역에 있는 토마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젊은 목사이면서 취업 회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비즈니스맨들에게 그들의 짐을 덜어주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은행원들과 지역의 모슬렘 젊은이들 간의 축구 시합을 통해 칼빈주의를 좀 더 활성화하려고 노력한다. 벨런타인데이에는 200여명의 젊은 전문 직장인들이 자기 구역의 노인들과 “데이트”를 하도록 주선했는데 가령, ABN-AMRO 은행에서 근무하는 35세의 직원이 88세 할머니와 함께 공원에 갔다 왔는데 이 은행원은 나중에 루벤에게 “오늘부터 나는 좀 더 인간임을 느낀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기타 맑은 정신, 매우 현실적인 태도 등도 칼빈주의에 포함된다고 말한다 (news.bbc.co.uk/2/hi/8140821.stm).

앞서 언급한 발컨엔데는 현대 경제에도 좀 더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제 위기는 또한 욕심, 돈에 대한 집착 및 이기적 행동으로 인해 야기된 도덕적 위기이다... 칼빈은 사회가 강력한 도덕적 닻을 필요로 하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10) 네덜란드 기업가정신에 관한 대표적인 웹사이트로는 www.ondernemerschap.nl (네덜란드어) 및 www.entrepreneurship-sme.eu (영어) 참조.

할 교훈이다”라고 주장하며 기독교 연합당의 리더인 포르드빈트(Joel Voordewind)도 “매우 폭넓은 기독교적 도덕관이 다시 네덜란드에서 부활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이것이 매우 부족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경제 위기를 통해 실직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정부는 우리 경제를 좀 더 공정하고 도덕적으로 만들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news.bbc.co.uk/2/hi/8140821.stm).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현대의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과 기업가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 칼빈주의와 미국에서 네덜란드 이민자들의 기업가정신

미국에서도 특히 미시간 서부 지역에는 암웨이(Amway Corporation), 메이어 슈퍼스토어(Meijer Superstore), 프린스 제조(Prince Manufacturing) 및 헤르만 밀러(Herman Miller) 가구회사, 등 네덜란드계 미국인들이 세운 기업들이 많이 있다(Ester, 2011; Cf. Pegels, 2011). 이들은 모두 올바른 기술과 경쟁력을 갖추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기업가들 대부분이 헌신적인 개신교도들이며 특히 직업윤리(소명의식), 청지기 직분, 검소, 절약하는 생활양식,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어 줄 아는 책임감 그리고 가정 및 지역 공동체와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것 등을 강조하는 칼빈주의를 신봉하고 있다는 것이다(Ester, 2011: 2).

나아가 미국에 있는 네덜란드계 이민자들은 칼빈주의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성을 쌓았으며 공장일, 높은 신용도 및 책임감으로 계급간의 갈등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Van Hinte, 1928: 775). 가령 암웨이 그룹의 공동 창업자였던 반 안델(Jay Van Andel)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와 같이 회고하고 있다. “나의 칼빈주의적 유산으로 인해 나는 우리의 일이 소명이라는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수입 수준이나 교육, 가정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다(Van Andel, 1998: 20).”

네덜란드 로테르담 에라스무스 대학의 교수이면서 국회 상원 의원인 피터 에스더는 미국 미시간 서부 지역의 칼빈주의적 정신을 가지고 기업가들이 된 사람들을 깊이 연구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네덜란드계 미국인 기업가들은 그들의 성공을 책임의식, 훈련, 열심히 일하는 정신, 신용, 정직 및 공평이라는 개혁주의적 가치와 원리들과 밀접히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Ester, 2011, 58). 그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가들 20명을 선발하여 개별적인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혁주의적 교육의 기초가 되는 칼빈주의적 세계관 및 생활양식이 그들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칼빈주의와 자본주의는... 네덜란드계 미국 기업가들에게는 서로 매우 가까운 친구사이다. 교리, 세계관 등의 측면에서 기본 전제는 양자가 함께 잘 조화된다... 네덜란드계 미국인 기업가정신의 탁월성은 칼빈주의 정신과 네덜란드계 미국인의 유산이 지지하는 자본주의 정신의 독특한 문화적 결합에 의해 형성되었다(Ester, 2011: 37).”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칼빈주의와 네덜란드의 기업가정신이 미국에서도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칼빈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기업가정신

막스 베버는 독일의 사회학자로서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원래 그가 1904년에서 1905년에 걸쳐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지에 실었는데 그 후 1920년에 책으로 출판된 것이다. 이 책에서 그는 서구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발생하게 된 근본정신은 개신교에 있다고 주장했다. 즉 개신교 윤리, 그 중에서도 직업 소명설을 주장한 칼빈주의가 당시 개신교도들에게 영향을 미쳐 검소, 절약하면서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여 그들의 기업을 발달시킴과 동시에, 재투자자를 위한 부를 축적하여 결국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베버는 자본주의란 소유 지향적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고, 질서정연하며 세상에서 진보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칼빈주의자들은 이에 덧붙여 신뢰, 근면, 정직, 절서, 노동, 절약, 시간 엄수, 훈련, 절제, 검소, 저축, 세심한 계산, 신중한 재정 관리 및 올바른 사용 그리고 권위에 대한 복종과 같은 성품을 강조했다. 이러한 성품들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정되었고 그 결과 더욱 성공할 수 있었다고 그는 분석한다(Weber, 2003: 98-127). 이러한 관점에서 칼빈주의는 중세 시대 이윤추구를 정죄하던 가르침에 정식으로 반기를 들면서 돈 자체를 정죄해서는 안 되며 5% 정도의 이윤을 받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가르쳤다(유태화, 2010: 28). 하지만 고리대금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vin, 1974) 칼빈주의는 또한 “이 세상에서의 금욕주의 (innerweltliche Askese)”를 강조했다는데 이는 매우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양식이다. 근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의무이며 따라서 경제적인 성공은 그러한 소명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의 축적은 죄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정당화되었다. 따라서 베버는 이러한 금욕적이면서 열심히 일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적 가치를 조합한 칼빈주의적 세계관이 서양 자본주의 발전에 결정인 요인이었다고 분석한 것이다.

나아가 베버는 이 책에서 종교개혁 이후 유럽의 경제 중심이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이태리 같은 가톨릭 국가들로부터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독일 같은 개신교 국가들로 이전했음을 주목한다. 개신교도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자본주의 경제가 더 발전했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지금도 그렇다. 또한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 사회에서도 가장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지도자들은 개신교도라고 그는 지적했다. 따라서 베버는 로마 가톨릭주의가 서구의 자본주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마치 동양에서 유교와 불교가 그런 것과 같다고 본다.

또한 소명이라는 개념이 발전하면서 현대적 기업가들과 노동자들에게 매우 분명한 양심을 심어주었다고 그는 보았다. 기업가들은 노동자들이 금욕적으로 자신의 소명에 헌신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서 자본을 축적하여 재투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베버는 특히 칼빈주의가 합리적으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지지했으며 이를 위한 세속적 활동도 도덕적이며 영적인 것으로 정당화했다고 강조한다. 소명이란 각 개인이 구원의 증거로 행동하는 것인데 단지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예정이란 경제적 불평등을 포함하며 물질적 부를 사후 구원의 증거로 간주했다. 따라서 탐욕이나 야망이 아닌 적정 이윤의 추구를 정당화했으며 그 동기 또한 도덕적인 것으로 인정했는데 베버는 바로 이것을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낳은 개신교의 종교적 이데올로기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의 이론, 즉 사회의 경제적 기초가 다른 모든 양상들을 결정한다는 논리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또한 “노동 윤리”라는 현대적 표현도 사실 베버의 “개신교 윤리”라는 말에서 기원하는데 일본인, 유대인 그리고 다른 비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en.wikipedia.org/wiki/Max_Weber#The_Protestant_Ethic_and_the_Spirit_of_Capitalism).

하지만 이 베버의 명제가 현재 네덜란드의 기업가 정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네덜란드를 철저히 배운 일본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개화하여 일찍이 근대국가를 이룬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몇 년 전 일본은 나가사키에 네덜란드 전체를 축소하여 만든 테마 파크인 하우스 텐 보쉬(Huis ten Bosch)를 개장할 정도로 개신교를 제외한 네덜란드의 모든 문물을 본받아 명치유신 이후 근대사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대만, 홍콩 및 싱가포르)이 지난 20세기 말 새롭게 발전시킨 자본주의의 형태는 베버가 말하는 ‘개신교 윤리’가 아니라 ‘신유교 윤리’(the New Confucian Ethic)라고 하버드대의 투웨이밍(Tu, Weiming)은 주장한다(Tu, 1989: 81-97).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베버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하우즈바르트의 보다 신중한 입장도 살펴보았지만 가령 역사적으로 볼 때 사마(Schama)같은 경우에도 네덜란드의 황금시대를 분석하면서 레이든의 직물 기업가들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부를 축적하여 비교적 베버의 이상형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chama, 1987: 340-41). 라이드(W.S. Reid)도 칼빈과 자본주의의 관계를 깊이 연구한 후 칼빈이 자본주의가 유럽의 일반적인 확장으로 당시에 발전하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칼빈을 자본주의의 창시자로 보기는 어렵고 종교개혁 이전의 모든 상황과의 연관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id, 1992: 19-25) 나아가 칼빈도 검소, 근면 그리고 분별력을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가에 대한 제한”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드는 칼빈이 자본주의를 제한하기 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Reid, 1992: 170). 홀(Karl Holl)도 이런 의미에서 베버의 명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시한다. 즉 “순수한 칼빈주의가 아니라 청교도주의가 “자본주의적 노력”의 방향으로 이끌었고 그것도 미국 식민지 토양에서만 제대로 꽃피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Holl, 1959: 89). 나아가 쾰바르트(Werner Sombart, 1863-1941)는 스페인, 아일랜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가톨릭 국가들도 자본주의를 조장하고 촉진하였다고 주장했다(Sombart, 1913). 스콜라 철학도 검약을 강조하고 나태를 금지하면서 상업에 있어 정직을 중요시하여 자본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고리대금업을 금지하여 근대 부르주아적 자본 개념을 지지하고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고 그는 본다. 후기 스콜라 학자들도 자본의 투자와 단순한 금전의

대부를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 대가를 받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오히려 개신교야말로 자본주의 경제 활동에 적대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발달에 끼친 영향은 결코 대단한 것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토니(Richard H. Tawney, 1880-1962)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개혁과 자본주의의 발흥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칼빈주의의 역할을 유일한 것으로서 강조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Tawney, 1926). 왜냐하면 칼빈이 죽은 후 한 세기 동안 칼빈주의가 겪은 심원한 변화를 베버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로버트슨(H. M. Robertson)도 베버를 비판하면서 자본주의는 실제로 14세기 이태리에서 먼저 발흥하였고 따라서 개신교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Robertson, 1933). 그 외에도 여러 학자들의 비판이 있지만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베버는 개신교 및 가톨릭의 교리를 잘못 해석했으며 프로테스탄티즘과 근대 자본주의와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도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19세기 중엽 마르크스가 유물사관을 주장하면서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베버는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동시에 유럽의 자본주의사회가 가치상실과 소외로 대표되는 불안정한 사회라고 진단하면서 자본주의의 종교적 가치지향성을 지적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을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위의 논의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는 베버의 명제가 항상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는 근대 자본주의 기업가정신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할 수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맥그라스(Alister McGrath)도 자본주의와 기업가 문화에 새로운 영향을 준 것은 칼빈의 사상적 결과물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McGrath, 1990: 253).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스터도 이러한 삶의 방식과 가치 그리고 세계관을 귀하게 여기면서 크게 성공한 네덜란드계 미국 기업가들을 구체적인 예로 들면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결론

지금까지 칼빈주의와 네덜란드의 기업가정신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양한 관점

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고찰하면서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압제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칼빈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보았고 나아가 17세기 황금시대의 기저에 칼빈주의적 세계관이 있음도 지적했다. 나아가 현대 네덜란드 및 미국의 네덜란드계 기업가정신에도 칼빈주의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16세기에 포르투갈과 브루헤 그리고 안트베르펜에서 많은 전문 기술자들과 기업가들이 암스테르담으로 대량 이주할 때 적지 않은 유대인들도 함께 왔다는 점이다.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들 또한 암스테르담에서 보석 및 금융 비즈니스를 하면서 네덜란드의 황금시대를 구현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별도의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칼빈주의가 네덜란드의 기업가정신의 근본 동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양자는 불가분리적인 점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칼빈주의적 세계관 특히 도덕과 가치들은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면서 네덜란드의 경제 발전을 더욱 촉진시켰다.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사명으로 이해하였기에 노동자들은 정직하면서도 부지런히 일하였고 나아가, 기업가들도 자신의 기업을 소유주가 아닌 청지기로 이해하여 겸손하면서도 주님 앞에 신실하여 모든 일에 정직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다. 이러한 청지기 정신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는 봉사적 태도는 당연히 허세와 사치를 지양하고 검소한 삶을 추구하여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이것을 재투자하여 기업을 발전시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일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의식이 있었기에 선한 사업에 나뉘주기도 좋아했던 것이다.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며 그 분의 문화적 대리인으로 창조 세계를 발전시키고 보존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세계관 및 인간관을 가진 네덜란드인들은 그들의 기업에 더 창조적이면서도 혁신적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전형적인 예로 네덜란드인들은 국토가 바다보다 낮으며 날씨가 좋지 않고 바람이 많이 부는 주어진 열악한 환경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혁시켜 나가 그 결과 환경을 전혀 오염시키지 않으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풍차를 발명하게 되었고 큰 호수였던 지역을 유럽 굴지의 공항인 스키펀 공항으로 변모시킨 것을 예로 들 수 있다(최용준, 2011: 34-38). 이러한 사실은 현대 유럽 및 국제 무역에서 네덜란드가 미치는 영향을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미국 미시

간 서부로 대량 이주했던 네덜란드계 미국 기업가들의 칼빈주의적 정신을 분석해 보아도 확인할 수 있으며 비록 약간의 수정은 필요하지만 막스 베버도 이 점을 잘 지적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양자의 연관성을 지혜롭게 적용한다면 한국의 상황에도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유태화 (2010), “칼빈과 자본주의”. 『칼빈과 사회』. 15-40. 부산: 한국 개혁주의 연구원.
- 최용준 (2011). 『하나님이 원하시면 (Deo Volente)』. 서울: 새한기획
- _____ (2012). “아브라함 카이퍼의 교회관” 『신앙과 학문』. 17(2).
- _____ (2013). “개혁주의 세계관과 한국 사회.”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 세계개혁교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 _____ (2013). 『당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서울: 새한기획.
- Beins, Ernst (1931). “Die Wirtschaftsethik der Calvinistischen Kirche der Niederlande 1565-1650”. *Nederlandsche archief vor kerkgeschiedenis* in N.S., XXIV. 81-156.
- Calvin, Jean (1960)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ook IV. 32. ed. J. T. McNeill, Trans. by F.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_____ (1974). Commentary on Ezekiel 18:8 in *Commentaries by Jean Calvin* ed. & trans. by J. Haroutounian, Grand Rapids: Baker Books.
- Crew, Phyllis Mack (1978). *Calvinist Preaching and Iconoclasm in the Netherlands 1544-156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Vos, Richard M. De Vries, J. en Van der Woude (1997). A. *The First Modern Economy: Success, failure, and perseverance of the Dutch economy, 1500-1815*, Cambridge.
- De Vries, J. en Van der Woude, A (1997). *The First Modern Economy: Success, failure, and perseverance of the Dutch economy. 1500-1815*. Cambridge.
- Ester, Peter (2012). *Faith, Family, and Fortune: Reformed Upbringing and Calvinist Values of Highly Successful Dutch-American Entrepreneurs*, Holland: Van raalte.
- Goudzwaard, Bob. “ECONOMIC STEWARDSHIP VERSUS CAPITALIST RELIGION”, www.allofliferedeemed.co.uk/Goudzwaard/BG13.pdf.
- Holl, Karl (1959).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Reformation*. New York: Meridian Books.
- Hyma, Albert (1938). “Calvinism and capitalism in the Netherlands. 1555-1700”,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Sep. 1938. Vol. X, Number 3. 325. www.jstor.org/stable/1899418?seq=5.
- Israel, Jonathan I. (1989). *Dutch primacy in world trade 1585-1740*, Oxford: Clarendon.
- _____ (1995). *The Dutch Republic: its rise, greatness and fall. 1477-1806*. Oxford: Clarendon.
- Kuyper, Abraham. (1880). *Sovereiniteit in Eigen Kring*. Amsterdam: Kruyt.

- _____ (1931).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 McGrath, Alister E (1990). *A Life of John Calvin: A Study in the Shaping of Western Culture*. Oxford: Blackwell.
- Noordervliet, Nelleke (2004). *Nederland In De Gouden Eeuw*. Wbooks.
- Pettegree, Andrew. Ed. (2000) *The Reformation Worl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Reid, W. Stanford (1992). "Jean Calvin: the father of capitalism?." in Richard Gamble. (ed) *Calvin's thought on economic and social issues and the relationship of church and state*. New York: Garland Publishing. 19-25.
- _____ (1992). "John Calvin, Early Critic of Capitalism (II), in R. Gamble, ed. *Calvin's thought on economic and social issues and the relationship of church and state*.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167-170.
- Robertson, H. M. (1933). *Aspects of Economic Individualism: A Criticism of Max Weber and His Schoo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Macmillan Co.
- Schama, Simon (1987). *The Embarrassment of Riches: An Interpretation of Dutch Culture in the Golden Age*, New York: Alfred Knopf.
- Schilling, Heinz. (1994). "Confessional Migration and Social Change: The Case of the Dutch Refugees of the Sixteenth Century" in *Entrepreneurship and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10th-20th Centureis)*. ed. Paul Klep and Eddy van Cauwenberghe.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321-33.
- Schurings, Ute (2003). *Zwischen Pommies und Pralinen*. Agenda Verlag: Auflage 1.
- Sombart, Werner (1913). *Der Bourgeois* München und Leipzig: Duncker & Humblot.
- Tawney R. H. (1926)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 Tu, Weiming (1989) "The Rise of Industrial East Asia: The Role of Confucian Values" *The Copenhagen Journal of Asian Studies* ej.lib.cbs.dk/index.php/cjas/article/viewFile/1767/1787.
- Van Andel, Jay (1998). *An Enterprising Life: An Autobiography*. New York: Harper Collins.
- Weber, Max (1934).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Tübingen: J.C.B. Moh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by Talcott Parsons. (New York: Dover. 2003).

www.expatica.com/nl/news/news_focus/The-Netherlands_-The-_most-Calvinist-nation-in-the-world_14301.html

www.internationalentrepreneurship.com/europe/netherlands

www.dutchdailynews.com/most-entrepreneurial-country-in-eu

www.ondernemerschap.nl, www.entrepreneurship-sme-news.bbc.co.uk/2/hi/8140821.stm
blog.daum.net/01099187669/8731902
en.wikipedia.org/wiki/Dutch_Golden_Age
en.wikipedia.org/wiki/Antwerp#16th_century
www.zum.de/whkmla/_sp/1011/ignoramus/demographic.gif
ko.wikipedia.org/wiki/플류트
blog.daum.net/sumbolon/4984197
[#Calvinisme_en_kapitalisme](http://nl.wikipedia.org/wiki/Calvinisme)
en.wikipedia.org/wiki/Calvinism#Social_and_economic_influences
en.wikipedia.org/wiki/Max_Weber#The_Protestant_Ethic_and_the_Spirit_of_Capitalism
www.cbs.nl/en-GB/menu/themas/bedrijven/publicaties/artikelen/archief/2008/2008-2483-wm.htm
www.youtube.com/watch?v=tH0RMME_U6o
goudeneeuw.ntr.nl

ABSTRACT

Calvinism and the Dutch Entrepreneurship:
a historical research

Yong-Joon (John) Choi(Handong Global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Calvinism and the Dutch entrepreneurship. The Netherlands can be called as the country where Calvinism has been developed not merely as a theological theory but as a life-system in which Calvin's thought has been applied to various spheres of life. Among them, the so-called 'trading spirit(*Handelsgeest*)' of the Dutch protestant, especially Calvinistic, Christians played the crucial role in achieving the independence from the oppression of Spain and in introducing the Golden Age of the 17th century. Even until now, the Dutch entrepreneurship based on Calvinism is so competitive in Europe, America and the rest parts of the world. This article, after discussing the basic relationship between Calvinism and the Dutch entrepreneurship by looking at the historical background, investigates the role of Calvinism at the Golden Age. It further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lvinism and the Dutch entrepreneurship in Europe and America, especially West-Michigan. After that, the famous thesis of Max Weber will be critically examined and evaluated. The conclusion drawn from all the preceding discussions is that Calvinism has been one basic ground motive in Dutch entrepreneurship so both are inseparable.

Key words: Calvinism, the Netherlands, entrepreneurship, Max Weber, work ethic.